

<2026년 수능 대비>

정도(正道) 세계사

일본사 중요 개념 Blank 정리



[_____]님의 꿈과 목표를 응원합니다!!

01 고대 일본의 발전	
야요이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과 한반도에서 벼농사 기술과 청동기·철기 전파, 여러 소국의 등장 → 3세기경 30여 소국의 연합체 형성
야마토 정권 (4세기~710)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의 통일 정권(4세기경), 전방후원분 축조(4~6세기), 불교 전래(from 백제, 552)
	아스카 시대 (592~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자의 섭정(593~622) 요메이 천황의 아들로, 스이코 천황의 시기에 태자의 자리에서 정치를 주도하였다. 중국의 선진 문물을 적극 수용하였으며, 불교 중심의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중앙 집권 체제 강화, 불교 진흥책 실시[호류사 창건(607) 등 문화(일본 열도 최초 불교문화) 발달], 견수사 파견 시작(600) 견당사(630~) 파견 당의 율령 체제 도입을 통해 국왕 중심의 통치 체제 수립을 위한 개혁 단행[](646)] 7세기 말부터 국호 '일본'과 '천황'의 칭호 사용 시작, 다이호 율령 반포(701)
시대 (710~7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에 (장안성 모방)를 건설하고 천도, 견당사·견신라사 파견, 체제 확립 창건(745), 대불전과 불상 건립 등 불교 융성 『일본서기』·『고사기』 등 역사서 저술, (萬葉集) 편찬(5~8세기 일본의 고전 시가 정리)
시대 (794~11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토) 천도, 폐지(894) 귀족·호족의 독자 세력 형성으로 확대, 지방에서 계층 성장 문화 발달[가나 문자, (和歌, 고유 시가), 모노가타리(이야기책, 『』), 침전양식(주택), 소쿠타이(고유 관복)] <p>9월 9일 학이 죽어 읊은 노래 / 국화꽃 위에 놓인 이슬도 아닌데, / 어찌 천세를 사는 학이 그리 사라졌는가?</p> <p>[해설] 이 작품은 이 시대에 유행한 의 하나로, 천황의 명에 의해 편찬된 시집에 수록되어 있다. 음력 9월 9일 중양절에 관상용으로 기르던 한 쌍의 학 중 한 마리가 죽자 그 슬픔을 노래한 것으로, 애지중지 키우던 학의 죽음을 국화꽃 위의 이슬이 사라지는 모습과 비교하면서 그 허무함을 묘사하고 있다. 또 에서 천도한 이후 귀족 사이에서 학을 키우는 것이 유행하던 당시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 동전 수입·유통



▲ 일본 최대의 무덤인 다이센 고분(사카이시)



▲ 대불전



▲ 대불

02 **막부 정권의 수립**

<p>수립 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헤이안 시대 후반 통치 체제 약화, 귀족과 호족의 [] 확대, 무사들이 서로 연합하거나 항쟁하면서 무사단으로 발전
<p>[] 막부 (1185~133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47~1199), 막부의 수장인 []이 무사들과 주종관계 형성, []은 상징적인 존재로 변모 • 사무라이의 [] 관리, []의 동전 수입·유통 • []의 침입(1274·1281) → 격퇴 과정에서 고케닌에 대한 무리한 동원으로 막부에 대한 불만 증가 → 쇠퇴
<p>[] 막부 (1336~157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05~1358), [](교토)에 개창, 명과 조공·책봉 관계 성립 → []무역 전개(1404~1547) • 가키쓰의 변(쇼군 피살, 1441) → 오닌의 난(1467~1477) → [] 시대[슈고 다이묘의 패권 경쟁, 왜구 출몰, 조총·크리스트교 전래, 1467~1590]
<p>[] (1537~159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시대 통일(1590), 무기 몰수령, 신분 간 이동 금지, 병농분리 정책 → 조카마치 등장 • 정한론과 조선 침략(1592)
<p>[] 막부 (1603~186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43~1616), []에 개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의 막부는 오사카 여름 전투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 히데요리를 토벌하였다. 이후 200년에 걸쳐 나라 안은 평화가 계속되어 백성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전쟁을 모르고 태평하였다. 그러는 동안 무사들은 근육이 둔해졌고, 전쟁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 타국의 책을 읽고서 유럽, 아메리카의 풍속과 가르침을 조금 알게 되어 오대주를 여행하며 돌아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러나 막부는 일본인이 외국에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 무릇 뛰어다니는 자가 말 탄 자를 보았을 때 그 부러움이 어떻겠는가? • [] 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중앙과 직할지 지배, 지방 []들은 []에게 충성하는 대가로 영토(번)의 지배권 확보 : [] 제도[무가제법도(武家諸法度) 기반, [] 통제, 1635~] • 신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농분리, 무사·상공업자·농민의 직업과 신분 이동 금지 → 무사와 상공업자가 거주하는 [] 성장 • 해외로 진출하는 일본 상인에게 [](주인장) 발급(1604~1635) • 17세기 전반 [] 정책 시행[크리스트교 포교 금지(1612), 사무역 통제, [] 상인의 입항 금지령(16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양 상인 중 [] 상인에게만 나가사키 앞 []에서의 무역 허용(1641~1858), [] 풍설서(風說書, 세계 정세 보고서) • 중국·조선과 교역 전개 • 농업 발달, 상품 작물 재배 증가, 도로망 정비로 상공업 발전, 도시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인, 수공업자) 성장, 도시 상공업자들의 동업 조합(가부나카마) 조직 • []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래, 춤 등이 어우러진 연극), 우키요에(인물, 풍속 등을 소재로 한 다색 목판화) 등 유행 • []를 통해 의학과 천문학 등 전래 → 스키타 겐파쿠 등 『해체신서』 간행(1774) → [](란가쿠) 발달 • 국학 운동 → 조선 통신사 중단(1811), 존왕(尊王) 운동에 영향

<p>03 개항과 근대화 운동</p>											
<p>개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페리 제독의 함포 외교(혹선, 1853) → [] 조약[시모다·하코다테 등 개항, [] 인정, 영사 주재 허가, 1854] • []의 자유 무역 요구 → [] 조약[가나가와·나가사키·니카타·효고 등 추가 개항, [] 인정, 협정 관세, 1858] 										
<p>막부 타도 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모노세키 전쟁(1863~1864) → 사쓰마번과 조슈번의 비밀 군사 동맹(1866) → [](尊王攘夷) 운동 전개 → 막부 타도 운동 확산 <p>무역에 익숙하지 않았던 간사한 상인들은 교활한 외국인들과 한때가 되어 서양 화폐를 실제보다 높은 금액으로 환산하여 매매하였기 때문에 물가는 더욱 더 뛰여 올랐다. …… 한시라도 빨리 천황이 원래의 올바르던 때로 되돌아와 재판하시고 서양 세력을 배척하라는 조서를 내리시면 천하의 지사들은 머리 털을 곤두세우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양이의 조서가 내려진다면 막부는 천황의 조서를 위반할 것이고, 다이묘(大名)와 쇼묘(小名)도 유유부단한 태도를 취할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이와 같은 천황의 조칙에 반하는 자들은 멧돼지나 원숭이 또는 돌이나 나무와 같은 자들 일 것이다.</p>										
<p>대정봉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재위 1866~1867)가 국가 통치권[대정(大政)]을 무쓰히토 덴노(재위 1867~1912)에게 반환(1867. 10월) 										
<p>왕정복고의 대호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쓰마번과 조슈번 동맹군이 교토의 궁정 장악 → 천황 중심의 신정부 수립 선포(1868. 1월) → [] 정부 수립 <p>선대 천황께서는 외국과 관련된 일을 다년간 우려하셨다. 지금까지 막부의 실책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다 오늘날에 이르렀지만, 세태가 크게 일변하여 실로 유신을 추진하는 대세를 멈출 수가 없다. 이번에 정부에서 의논한 결과 단호히 조약을 개정할 것이다. …… 단, 지금까지 막부가 체결한 조약 중 폐해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해득실을 공의(公議)에 부친 후 개정할 것이다. 한편 외국과 교류하는 것은 세계의 공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므로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p>										
<p>[] (1868~19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진적이고 전면적인 서구화를 지향하는 위로부터의 근대화 운동 <table border="1" data-bbox="526 853 2060 1292"> <tr> <td data-bbox="526 853 638 1093"> <p>정치</p> </td> <td data-bbox="638 853 2060 10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도를 도쿄로 개칭(1868), 황궁의 도쿄 천도(1869), [](지방 제도 정비 → 중앙 집권 체제 수립) 단행(1871) <p>짐은 이전에 여러 번(藩)의 판적봉환*의 제의를 받아들여, 새로 지번사(知藩事)를 임명하여 각자의 직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그러나 수 백 년에 걸친 낡은 관습 때문에 그중에는 그 명목만 있고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번이 있었다. …… 따라서 지금 더욱이 번을 폐지하고 현으로 한다. 이것은 가능한 한 낭비를 없애 간소하게 하고 유명무실의 폐해를 제거하여 법령이 지방면에서 실행되는 문제점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p> <p>*판적봉환 : 각 번의 다이묘가 토지(판)와 백성(적)을 천황에게 반환하는 것</p> </td> </tr> <tr> <td data-bbox="526 1093 638 1133"> <p>군사</p> </td> <td data-bbox="638 1093 2060 11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병제 시행(1873) </td> </tr> <tr> <td data-bbox="526 1133 638 1173"> <p>경제</p> </td> <td data-bbox="638 1133 2060 11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조(地租) 개정(근대적 토지 제도와 조세 제도 확립), 정부 주도의 상공업 육성, 근대적 공장 설립 </td> </tr> <tr> <td data-bbox="526 1173 638 1212"> <p>사회</p> </td> <td data-bbox="638 1173 2060 1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건적 신분제 개혁([], 1871), 서양식 교육 제도와 의무교육 도입(1872), 유학생 파견, 신도의 국교화, 우편 제도 실시 </td> </tr> <tr> <td data-bbox="526 1212 638 1292"> <p>대외</p> </td> <td data-bbox="638 1212 2060 12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파견(1871~1873) ↳ 서양 문물 시찰과 불평등 조약 개정을 목적으로 1871년에 []과 유럽에 파견한 사절단 </td> </tr> </table>	<p>정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도를 도쿄로 개칭(1868), 황궁의 도쿄 천도(1869), [](지방 제도 정비 → 중앙 집권 체제 수립) 단행(1871) <p>짐은 이전에 여러 번(藩)의 판적봉환*의 제의를 받아들여, 새로 지번사(知藩事)를 임명하여 각자의 직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그러나 수 백 년에 걸친 낡은 관습 때문에 그중에는 그 명목만 있고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번이 있었다. …… 따라서 지금 더욱이 번을 폐지하고 현으로 한다. 이것은 가능한 한 낭비를 없애 간소하게 하고 유명무실의 폐해를 제거하여 법령이 지방면에서 실행되는 문제점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p> <p>*판적봉환 : 각 번의 다이묘가 토지(판)와 백성(적)을 천황에게 반환하는 것</p>	<p>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병제 시행(1873) 	<p>경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조(地租) 개정(근대적 토지 제도와 조세 제도 확립), 정부 주도의 상공업 육성, 근대적 공장 설립 	<p>사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건적 신분제 개혁([], 1871), 서양식 교육 제도와 의무교육 도입(1872), 유학생 파견, 신도의 국교화, 우편 제도 실시 	<p>대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파견(1871~1873) ↳ 서양 문물 시찰과 불평등 조약 개정을 목적으로 1871년에 []과 유럽에 파견한 사절단
<p>정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도를 도쿄로 개칭(1868), 황궁의 도쿄 천도(1869), [](지방 제도 정비 → 중앙 집권 체제 수립) 단행(1871) <p>짐은 이전에 여러 번(藩)의 판적봉환*의 제의를 받아들여, 새로 지번사(知藩事)를 임명하여 각자의 직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그러나 수 백 년에 걸친 낡은 관습 때문에 그중에는 그 명목만 있고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번이 있었다. …… 따라서 지금 더욱이 번을 폐지하고 현으로 한다. 이것은 가능한 한 낭비를 없애 간소하게 하고 유명무실의 폐해를 제거하여 법령이 지방면에서 실행되는 문제점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p> <p>*판적봉환 : 각 번의 다이묘가 토지(판)와 백성(적)을 천황에게 반환하는 것</p>										
<p>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병제 시행(1873) 										
<p>경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조(地租) 개정(근대적 토지 제도와 조세 제도 확립), 정부 주도의 상공업 육성, 근대적 공장 설립 										
<p>사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건적 신분제 개혁([], 1871), 서양식 교육 제도와 의무교육 도입(1872), 유학생 파견, 신도의 국교화, 우편 제도 실시 										
<p>대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파견(1871~1873) ↳ 서양 문물 시찰과 불평등 조약 개정을 목적으로 1871년에 []과 유럽에 파견한 사절단 										
<p>[] (1874~188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타가키 다이스케 주도로 『민선 의원 설립 건백서』 제출(근대적인 [] 설립과 [] 제정 주장, 1874) ↳ 일본 [] 공포(1889), [] 개설(1890), 교육칙어 반포(1890) 										

04 대외 팽창 정책

□
(1868~1870)

- 국내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에 대한 정벌 주장 → 실행 보류
 - 홋카이도 개척(1872), 타이완 제1차 출병(1874), 운요호 사건(1875)과 조선 개항(1876), □ 병합과 오키나와현 설치(1879)
 - □ 전쟁(1894~1895) 승리
- :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 충돌, □ 조약으로 타이완, 랴오둥반도 차지 → 삼국 간섭(□·독일·□)으로 랴오둥반도 반환

전보가 베이징에 도착하였다. 나는 소식을 받고 곧장 량치차오에게 명하여 각 성에서 올라온 거인(擧人)*들에게 소식을 알리게 하였다. 우선 광둥에서 올라온 거인들에게 **강화 조약** 협상 거부를 상서할 것을 알렸다. …… 량치차오와 분담해서 중앙 관료에게 가서 알리자 모두 분노하고 상서가 도찰원에 가득 넘쳐났다. 타이완 출신의 거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타이완 할양을 거부하는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하였다. …… 하루 낮과 이틀 밤 사이에 상서를 작성하여 강화 조약 협상 거부, 천도, 변법이라는 3가지를 청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도찰원은 강화 조약에 이미 옥새를 찍어 버려 이제 만회는 불가능하다며 더 이상 상서를 접수하지 않았다.

*거인 : 과거 시험 중 향시에 합격한 사람

조선에서 변란이 일어났을 때 중국과 일본이 모두 다투어 부대를 파견하였다. 결국 일본군이 중국 부대를 수송하는 기선을 침몰시키면서 **전쟁**이 벌어졌다. …… 일본군이 웨이하이웨이라는 중국 항구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 상륙하자 중국은 대포를 만(灣)에 있는 자기 함대를 향해 쏘고 말았다. 그 결과 중국이 입은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는 중국이 제조한 무기의 패배가 아니라 중국의 지도력과 전략의 패배였다. 중국은 일본에 화평을 청하고 가장 탁월한 고령의 정치가인 이홍장을 보내 협상하였다.

- 패트리샤 버클리 에브리 -

- 러일 전쟁(1904~1905) 승리
- : □ 조약(미국의 중재)으로 남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이권 확보 → 을사늑약(조선 보호국화, 1905. 11월)

대외 침략

- □ 사변(1931) → □ 수립(1932) → □ 탈퇴(1933) → □ 전쟁 발발(1937) → 3국 방공 협정(1937)
- 제2차 세계 대전(1939~)의 추축국 형성 → □ 침공(1940) → 태평양 전쟁 도발(□ 기습, 1941) → 패망(1945)